

김서영

영국 윌레스
컬렉션의 상설 보존
전시관 운영을
통해 본 보존과
일반 대중과의 교류

14»

영국 월레스 컬렉션의 상설 보존 전시관 운영을 통해 본 보존과 일반 대중과의 교류

김서영¹
월레스 컬렉션 보존실



Communicating Conservation to the General Public: Conservation Gallery Exhibition at the Wallace Collection, London, UK

Seoyoung Kim¹

Conservation Department, The Wallace Collection

¹ Corresponding Author : seoyoung.kim@wallacecollection.org

| 초록 |

영국 국립 박물관 중의 하나인 런던의 월레스 컬렉션은 보존과 관련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유물의 제작 기법과 재료를 다룬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에 관한 특별 주제로 전시를 하기도 한다. 월레스 컬렉션의 현재 보존관련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 그리고 영국 내 다른 박물관의 예를 통해서, 보존과 일반 대중과의 관계와 교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물관은 기존에는 수동적 정보 전달의 역할이었지만, 현재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존도 일반 대중의 위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는 추세다.

주제어: 월레스 컬렉션, 보존, 전시, 대중, 교류

| ABSTRACT |

The Wallace Collection in London (one of the national museums in the UK) has a gallery dedicated to conservation related displays. As well as permanent displays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materials of artifacts, there is a specially designed space for temporary conservation exhibitions. Through the example of the current conservation exhibition at the Wallace Collection and similar exhibitions and displays from other museums in the UK, this paper will study how th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servation profession and the general public have changed, from conservation as a behind-the-scenes and little-known activity to a closer interaction with the public and as a direct educational tool. The general function of a museum can be seen to have evolved

*접수: 2011. 9. 30 *수정: 2011. 10. 27 *게재확정: 2011. 11. 10

from providing passive information to its visitors to offering more active and various forms of education. Conservation has developed with this change towards more awareness of the profession and its role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public outreach programs and displays.

Keywords: the Wallace Collection, Conservation, Display, General public, Communicating

1. 서론

영국 월레스 컬렉션 (the Wallace Collection)에서 금속, 갑주 보존처리자 (Metals, Arms and Armour Conservator)로 일하는 필자는 최근 박물관 내 상설 보존 전시관에 동양에서 출토된 갑주의 전통 표면 장식과 보존 관련 주제에 대한 전시(Dazzling Arms and Armour from the East: Surface Decoration and Conservation Issue)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본 원고에서는 월레스 컬렉션 보존 관련 전시와 영국 내의 다른 박물관의 예를 통해, 보존과 일반 대중과의 교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월레스 컬렉션

월레스 컬렉션(the Wallace Collection)은 런던 시내에 위치한 영국의 국립 박물관 중 하나로, 한 가족이 5대에 걸쳐 수집한 소장품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이다(Fig. 1). 리처드 월레스 경(Sir Richard Wallace)이 별세한 1897년에, 그의 미망인이 전체 소장품과 저택을 기증하여, 1900년에 국립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월레스 컬렉션의 소장품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미술품(회화, 조각 등)과 장식적 응용 미술품(도자기, 금은제품, 호화 생활용품, 가구 등)이 주요 소장품인데 특히 세계적 수준의 18세기 프랑스 컬렉션(회화, 도자기, 가구)과 유럽 명회화

컬렉션 그리고 유럽, 동양의 갑주들이 유명하다(Fig. 2&3).



Fig. 1. The Wallace Collection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Fig. 2. The Front State Room
©The Trustees of Wallace Collection

영국의 다른 국립 박물관들처럼 월레스 컬렉션도 무료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장품들의 높은 퀄

리티와 무료입장으로 영국민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월레스 컬렉션의 보존과학부는 정직원 4명과 계약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분야는 금속, 가구, 장식적 응용 미술품 (Decorative Art)과 회화 프레임이다. 그 외에 도자기, 회화, 직물 등은 외부상주로 처리하고 있다. 보존과학부는 유물의 보존 처리뿐 아니라 박물관내 환경 관리, 전시 시설 관리, 전시 설치와 철수, 그 외에 전체적인 소장품 관리의 업무도 맡고 있다.



Fig. 3. 16th Century Gallery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Fig. 4. Conservation Permanent Exhibition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3. 영국의 보존관련 전시 동향

3.1. 월레스 컬렉션의 보존관련 전시

월레스 컬렉션의 총 25개 전시실 중,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보존 전시관은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문을 연 상설관으로 가구(예, bouffe furniture)와 유럽 갑주에 쓰였던 재료들과 제작 기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Fig. 4). 그 외에도 방문객들이 실제 만져볼 수 있는 여러 원료와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방문객들이 입어볼 수 있는 실제 중세 시대의 갑옷과 현대에 제작된 복제 갑옷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런 역사적 유물들의 제작 과정과 특성(갑옷의 무게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이 유물들을 실제 착용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실 수업 외 역사와 문화재 유물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

보존 전시관에는 상설 전시 이외에도 임시 특별 전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Fig. 5). 2.6m x 2.4m 규모의 전면 유리 전시관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주로 한 전시 당 6개월간)의 기획전을 전시하는데 월레스 박물관의 보존관련 연구 업적이나 작품 보존처리 결과, 유물 분석에 관련된 내용 등을 주로 전시한다. 이 외에도 월레스 박물관의 지역 파트너 박물관의 소장품과 업적 등을 전시하기도 한다.



Fig. 5. Conservation Special Exhibition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이 보존관련 전시들은 일반 주제의 특별전에 비

해 훨씬 적은 예산과 재원으로 준비되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들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의 제작과정과 소장품의 보존과 관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전시는 일반 관람객이 평소 다른 전시에서 볼 수 없는 박물관 전시 준비과정과 이에 필요한 재료 및 절차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관람객들이 소장품을 다른 시각으로 주의 깊게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월레스 컬렉션의 보존 전시관은 영국 내에서도 드문 보존에 대한 상설 전시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시 교육 목적은 최근 영국 내 다른 박물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월레스 컬렉션은 기존의 전통적 박물관 운영 방식, 즉 유물 전시와 연구 조사 등을 개장 시간을 피해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개장 시간 내에 전시관 안에서 소장품의 설치, 환경 조사, 연구와 같은 업무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개장 시간 내에 관람객들과의 교류를 높이고 그들의 박물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3.2. 영국 박물관들의 보존관련 전시 동향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특히 국립과 시립)은 자체 내에 보존과학실과 보존처리실을 가지고 있고, 주된 업무는 주로 유물 제작 과정 연구, 재료 분석 연구, 보존 처리뿐 아니라 환경 관리(preventive conservation) 및 전시 설치, 전시 관리 등 다양한 일에 관여한다.

최근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이 보존학과 관련된 'Behind-the-scenes'에 대한 전시나 관람객들이 보존과학실이나 보존처리실을 방문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늘어난 텔레비전 등의 방송매체에서 방영하는

여러 방송물 (Antique Roadshow, Restoration Roadshow, Antique Mater, Time Team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보존과 복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내에서의 고고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넓게 자리 잡힌 골동품 수집의 문화가 보존과학과 보존처리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정기적으로 찾는 방문객들은 보존을 비롯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장품 전시에 관여된 준비과정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많은 박물관이 보존처리 과정을 전시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 월레스 컬렉션처럼 보존으로 상설 전시를 하는 박물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여러 차례 열린 보존과학자와 보존처리자들이 일반 전시관의 관람객들 앞에서 보존처리를 하는 '라이브 (live)' 전시는 대중에게 좋은 반응을 보인바 있다.

2008년 대영박물관에서 6주간에 걸쳐 'Conservation in Focus'라는 주제로, 전시실에서 여러 분야의 보존처리자들이 실제 유물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면서, 관람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의 전시를 열었는데, 3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큰 성공을 이뤘다. 이 외에도 햄튼 코트 궁 (Hampton Court Palace)은 'Ask the Conservator'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보존처리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본인 개인 소장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리버풀에 위치한 국립 보존 센터(the National Conservation Centre)에서는 2010년 12월까지 보존과학자와 보존처리자들의 연구실과 작업실의 일부를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고,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위치한 켈빈그로브 박물관 (Kelvingrove Museum and Art Gallery)에서는 회화 보존 처리를

일반 전시관 내에서 실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월레스 컬렉션에서도 2008년에 은제 유물처리 과정을 전시관 내에서 시범을 보이는 '라이브' 전시를 하였다.

유물 보존 처리에 관련된 '라이브'전시 외에도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이 보존과학 작업실을 방문할 기회를 일반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옥스포드에 위치한 아쉬몰리안(Ashmolean)박물관은 'Conservation CSI'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이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해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월레스 컬렉션도 이와 비슷한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보존과 관련된 전시는 일반들에게 보존과학과 보존처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박물관의 방문객 수를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증가라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전시들은 특별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영국의 National Trust는 현재와 과거의 유물 보존의 예를 일반 관람객에게 전시하는 방법을 통해 미래 유물 보존에 들어갈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

4. 월레스 컬렉션의 전시 사례

월레스 컬렉션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존관련 전시는 보존과학자와 보존처리자들이 직접 기획부터 설치까지 맡아서 진행한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유물 선정, 보존처리, 참고서적 조사, 전시 설명문 집필, 전시 도면 설계와 설치까지 맡고, 유물 사진과 그래픽, 전시 본문 패널 디자인에도 깊게 관여한다.

2011년 4월에 시작한 'Dazzling Arms and Armour from the East: Surface Decoration and

Conservation Issues' 전시는 1년간 전시될 예정인데, 총 17개의 동양의 갑주(Oriental Arms and Armour)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Fig.6). 총 17개의 유물 중 하나를 제외한 16개의 유물은 오랜 기간 수장고에 저장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관객들에게 공개 할 수 있었다. 전시의 제목이 제시하듯 이 전시는 동양(인도, 터키, 페르시아, 아랍, 중국 등) 지역의 갑주에 사용된 표면 장식과 문제점들과 보존처리에 대한 전시로, 유물의 전체적인 구조나 특성보다는 세부적 표면 장식에 중점을 맞추어 기획 되었다.

전시 설명문 패널은 '장식기법(Decorative Techniques)'과 '보존 관련 주제 (Conservation Issues)' 섹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장식 기법에서는 표면 장식에 사용된 전통 장식 제작 기법을 논하고 보존 관련 주제에서는 다루고 있는 표면 장식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전통 장식기법은 주로 문헌이나 유사 유물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보존 관련 주제는 유사 유물에서 주로 보이는 문제점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작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월레스 컬렉션의 보존 전시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이므로 전시 설명문 안에 전문 용어의 사용이 제한되었고, 시각적 효과와 관람객의 집중력 시간을 고려해 각 유물에 관한 설명문은 200단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보존 관련 주제 섹션은 간략하게 쓰였고, 특히 자세한 처리 방법과 재료의 제품 이름 등은 본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이를 남용해 본인의 소장품에 잘못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아래는 유물과 함께 전시된 설명문의 몇 가지 예이다(Fig. 7).



Fig. 6. 'Dazzling Arms and Armour from the East: Surface Decoration and Conservation Issues'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Fig. 9. Magnifying glass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Fig. 7. Explanation board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Fig. 8. Surface decoration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설명문의 예 1. Sword and Scabbard (OA1628)

● Decorative Techniques

Late 18th century Indian single edged sabre (shamshir) and scabbard (OA1628). The hilt and two suspension bands on the scabbard are made of gilt silver. The silver surfaces are elaborately enamelled (*basse taille* and *champlevé*) in multiple colours. In *basse taille*, a silver backing is cut in low relief and transparent enamels are applied over this, showing different depths of colour and patterns on the background meanwhile only opaque enamels are used in *champlevé*. The wooden scabbard is covered with shagreen (skin of shark/ray). The swirling ('watered silk') patterns on the blade are produced by the segregated microstructure of a high-carbon crucible steel (*wootz*).

● Conservation Issues

The points of the blade and scabbard are missing. Enamels are susceptible to both mechanical

and chemical damage (e.g. chips, flakes and crizzling). Unstable areas can be stabilised using a consolidant. Over-cleaning and polishing of the wootz blade was commonly practised in the past resulting in a loss of the characteristic swirling patterns.

설명문의 예 2. Pistol (OA2110)

● Decorative Techniques

19th century North Albanian flintlock pistol(OA2110). The fore end of the barrel is sheathed with embossed copper/silver alloy with false ramrod. The lock and barrel are engraved. The wooden stock is inlaid with silver wire in spiral scrolls and annular ornaments and is covered with silver sheets with filigree decoration. The butt cap (end of the stock) is decorated with niello(black inlays of metallic sulphide mixtures within the bright silver surface). The composition of niello varies considerably, but is normally prepared by fusing sulphur with silver and copper, although lead and antimony might also be added. Relatively soft, prepared niello is cast into the recesses and then ground and polished flat. Red cabochon stones are set in bezels (metal rims used to secure stones).

● Conservation Issues

Silver is easily tarnished and a partial loss of inlaid silver is seen in areas. It is often difficult to clean tarnished silver with complicated surface decoration (e.g. filigree) and easy to leave polishing residues in crevices. Cleaning of tarnished silver with niello decor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great caution since it is easy to

remove nielloinlays accidentally. Bezels around stones can be easily distorted.

전시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표면 장식의 마크로 클로즈업으로 일반인이 평상시 보지 못했던 디테일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Fig. 8). 실제 유물 전시 이외에도 장식 기법에 사용된 제작도구나 최근에 만들어진 예를 돋보기와 함께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Fig. 9). 특히 몇몇 유물들은 기존에 볼 수 없던 안쪽 면을 전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밀히 장식하는 전통 공예의 예를 보여주었다.

일반 전시 이외에도 매달 한 번씩 전시관 내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표면 장식 기법과 보존 관련 주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 참석하는 등의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존 전시는 박물관내의 교육과(Education Department)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교육과의 정기 프로그램에 이용되기도 한다.

5. 결론

기존의 박물관의 고전적인 역할이 현대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면서, 일반 관람객의 박물관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박물관 유물의 이용도 변화되었다.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이 기존의 수동적 정보 전달 보다는 일반 방문객과의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 정보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박물관 내의 보존의 역할도 이에 동참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장 유물의 이용이 기존의 전문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교육에 기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존과학자와 보존처리자들도 단순히 작업실과 실험실에서만의 연구,

분석, 보존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과의 일차적 접촉을 통해 보존처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과학과 박물관의 프로필을 높이는 일에 한몫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존과학의 변화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월레스 컬렉션의 상설 보존 전시관은 이러한 대세를 잘 반영한 예로 영국의 다른 박물관들의 예와 함께 보존과 일반 대중과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보존 관련 전시의 사례를 접하기 어렵지만, 상호 교류를 통해 영국과 한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존과학이라는 분야를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Drago, Amy, 2011, 'I feel included': the Conservation in Focus exhibition at the British Museum,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ervation Vol 34, No.1, pp. 28-38.